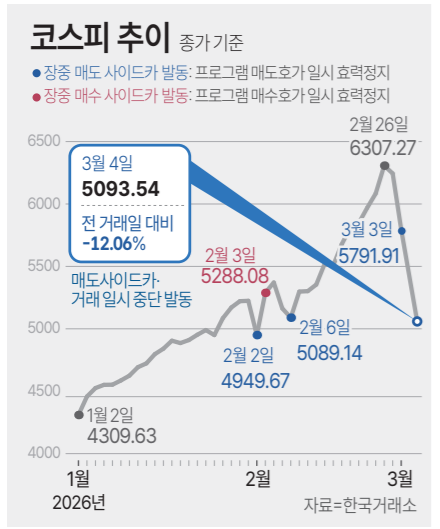




이틀 연속 최대 낙폭... 코스피 '아수라장'

어제 698%p 곤두박질 5093 마감
이틀간 19%·1150p↓... 유레 없어
중동 정세 악화... 맥없이 무너져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잇따라



이란 탈출 행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긴장이 고조되면서 3일(현지 시간) 터키 북동부 반의 라자-카피코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이란 국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란 내부의 공포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각국에서는 탈출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중동 전쟁리스크 영향으로 급락했다. 5791.91로 출발한 코스피는 4일 5093.54로 마감해 약 12.06% 하락했다. 하루 만에 7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오천과'를 간신히 사수했다. 5000선을 사수했으나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 하락률 1위는 미국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2일 기록한 12.02%였다. 오전 9시에 코스피200선물지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를 정지

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틀 연속된 사이드카 발동이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에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고 20분간 코스닥시장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코스닥 상장 종목의 거래가 일시 정지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

옵션 시장 거래도 함께 중단됐다. 전날 코스피는 중동긴장이 고조되면서 452.22포인트 내린데 이어 4일 698.37포인트 내려 이틀간 1150.59포인트 폭락했다. 투자 동향은 엇갈렸다.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는 이어졌으나 기관은 순매도 흐름을 보였다. 최근 외국인 순매도와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던 흐름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글로

벌 대표 지표중 상승률 1위 기록하면 급상승했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이틀 연속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159.26포인트(14.00%) 급락한 978.4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하락률 역시 역대 최대다. 직전 역대 최대하락율은 2020년 3월19일 기록한 11.71%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20분 기준 10원 10

전 오른 1476원 20전이다. 같은날 일본 증시도 흔들렸다. 닛케이 지수는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이날 3.61% 넘게 하락했다. 전날 3% 하락, 2일 1.35% 하락에 이어 낙폭이 확대됐다. 2월 27일 58850.27로 마감했던 닛케이지수는 4일 54245.54로 마감했다. 일본 이외 대만(-4.35%), 홍콩 항셱(-2.47%)지수 등 아시아 증시 역시 하락했다.

이선주 기자 silee@skyedaily.com

1월 생산 1.3% 감소
반도체 조정기 겹쳐
소매판매·설비투자는 증가

1월 생산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에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는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을 4일 발표했다. 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2025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1월 감소 전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공업은 전자부품 생산이 6.5% 늘었으나 반도체가 4.4% 감소하고 기타운송장비는 17.8% 감소하며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자동차와 전자부품 각각 17.4%와 21.5% 상승하며 7.1%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보험세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이 8.0% 증가하고 금융보험은 1.1% 증가했다. 그러나 소매가 1.4% 감소하고 전문·과학기술에서 3.0%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2025년 10월 2.8% 증가하고 2025년 11월 3.5% 감소했다가 다시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의복 등 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하고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2.3% 증가했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9% 증가했다. 소매업체별로 보면 슈퍼마켓 및 잡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13.8%와 20.1% 감소했으나 백화점이 7.6% 증가하고 면세점도 9.7% 증가했다. 내구재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에서 7.6% 증가하고 무점포 소매가 6.1%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6.8%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 계속 감소하다 올해 1월 반등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15.1%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류가 4.0%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토목은 보험세를 보였으나 건축에서 15.0% 감소했다. 비주거용 및 주거용 건축이 모두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험세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 수치이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3일 새 휘발유값 56원 '경충' 왜?

이란전쟁 터지자 급격 인상
국제유가 초고속 반영 논란
정유업계 "사재기 수요 탓"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가격 인상은 예정됐으나 국제유가가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픈넷에 따르면 4일 전국 휘발유 가격은 1당

1751원이다. 서울 1당 휘발유 가격은 1821원으로 1800원대를 넘어섰다. 1당 휘발유 가격은 3월1일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1당 휘발유 가격은 1696원이었으며 서울 1당 휘발유 가격은 1752원이었다. 단 3일 만에 1당 휘발유 가격이 50원 이상 올랐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 원인으로 미국의 이란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꼽힌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기 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제유가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2월 4주 1당 휘발유 공

급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했다. 이에 더해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며 유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선을 운송하겠다"며 유가 안정에 나섰으나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부터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은 빠르게 반영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은 느리게 반영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했으나 조사 결과 답답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데에는 2-3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주 기준으로는 2월 2주와 2월 3주 국제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2월 2주 국제유가는 배럴당 74.7달러로 전주 대비 2.3달러 증가했고 2월 3주에는 75.1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2월 4주에는 78.6달러로 급격히 상승했다.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2월 2주 67.8달러로 전주 대비 1.4달러 올랐고 2월 3주에는 1.5

달러 올랐다. 2월 4주는 70.3달러로 10달러 올랐다. 그러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전쟁 발발 직후 급격히 상승하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유 업계에 문의한 결과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사재기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일시적인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을 빨리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재고 순환이 빨라지고 늘어난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페니 바이' 현상으로 보인다"며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다보니 국제 제품 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평시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박재혁 지음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서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